



최경주가 24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바클레이스 1라운드 18번홀 그린 주변 벙커에서 멋지게 탈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1,000만 달러 향해 순항

‘완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최경주 자선 재단’ 설립의 꿈을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최경주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해리스의 웨스트체스터골프장(파71·6천839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바클레이스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4타를 뽐내 로리 사바티니(남아공·63타)에 1타 뒤진 2위를 달렸다. 4개 대회를 치러 성적을 합산, 1위 선수에게 1천만 달러의 천문학적 상금을 주는 플레이오프에서 첫 단추를 산뜻하게 꿰 섰다. 정규시즌 포인트 순위 5위를 차지해 기본점수 9만7천 포인트를 안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대회에 불참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PGA 바클레이스 1R 7언더 2위

“우승엔 상금으로 자선재단 설립”

제치고 포인트 1위에 오를 수 있다. “천만 달러를 받으면 내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최경주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웨스트체스터골프장에서 두차례나 컷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선수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불꽃같은 휘둘렀다. 드라이브샷은 단 세 차례만 페어웨이를 벗어났을 뿐이고 아이언샷 그린 적중률은 무려 83.3%에 이르는 컴퓨터샷을 쏘아냈다. 퍼팅 컨디션도 빼어나 15차례 버디 찬스

에서 8개의 버디를 성공시켜 홀당 퍼팅수는 1.467개에 불과했다. 1번홀에서 첫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최경주는 특히 후반 9개홀에서 5개의 버디를 쓸어담아 30타를 치는 신바람을 냈다. 3번홀(파4) 보기를 빼면 그야말로 완벽한 플레이였다. 최경주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정규시즌 포인트 6위 사바티니는 최경주보다 그린 플

레이에서 딱 한번 앞선 덕에 선두 자리를 꿰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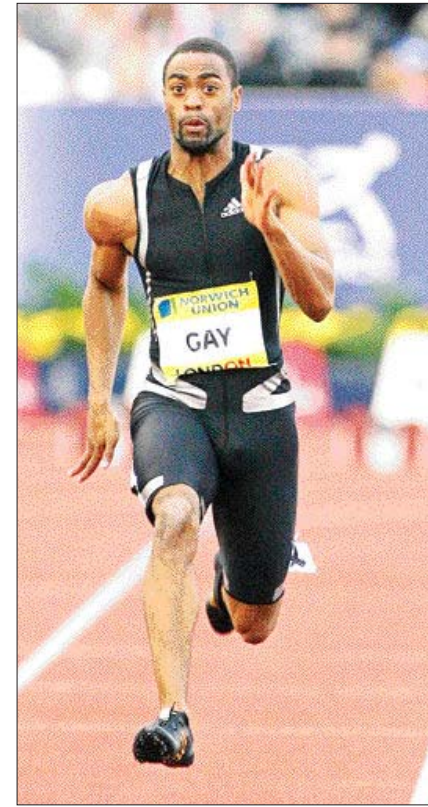
사바티니는 14차례 버디 기회 가운데 8차례를 버디로 연결했고 4차례 보기 위기를 모두 파로 넘겼다.

정규시즌에서 134위에 그쳐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못하면 탈락하는 리치 밍(미국)을 비롯해 브라이언 게이, 스티브 플래시(이상 미국),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니 엘스(남아공) 등이 6언더파 65타를 쳐 공동4위에 포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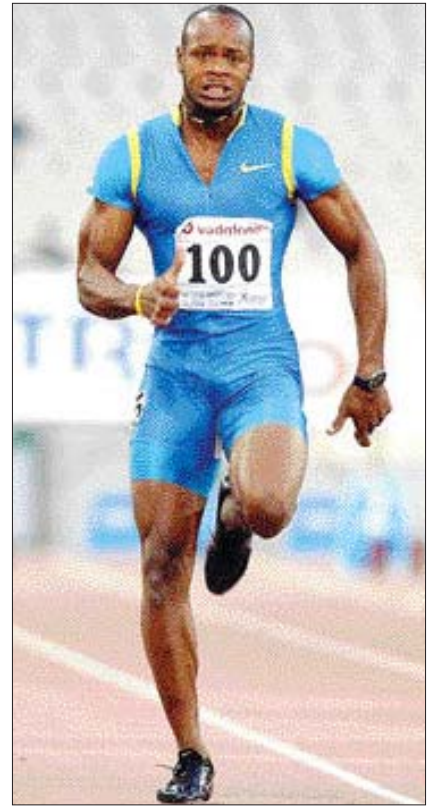
앤서니 김(21·나이키골프)은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18위에 올랐지만 나상욱(23·코브라골프)은 3오버파 73타,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4오버파 75타로 부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7 세계육상선수권



〈 타이슨 가이 〉



〈 아시아 파월 〉

‘인간 탄환’은 바로 나

내일 가이 VS 파월 남자 100m 결승

둘다 빠르지만 진정한 ‘인간 탄환’은 한 명 밖에 존재할 수 없다.

100분의 1초든, 1천분의 1초든 한 명은 좀 더 빠르고, 다른 한 명은 늦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승부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카리브해의 바람보다 빠르다는 아시아파월(24·자메이카)과 단거리 왕국 미국을 휩쓴 도전자 타이슨 가이(24·미국).

파월과 가이는 26일 밤 10시20분 오사카 나가이스타디움 트랙에서 펼쳐질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만난다.

몸의 격들을 놓고 1987년 대회 칼 루이스(미국)와 벤 존슨(캐나다)이 펼쳤던 ‘세기의 대결’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100m 세계기록(9초97)을 세 차례나 짝은 파월은 단연 현역 최고 스프린터다.

지난 6월 월드컵 1차 시리즈에서 9초94에 골인해 생애 통산 27번째 9초대를 주파했다. 작년엔 12회 연속 9초대로 진입한 적도 있다.

‘뛰면 9초대’를 찍는 그의 페이스는 그러나 폭발적인 탄력의 허벅지를 괴롭힌 부상 탓에 한풀 꺾였다.

게다가 ‘큰 경기에 약하다’는 오명이 늘 파월의 뒤를 따라다녔다.

2003년 파리 세계육상대회에선 부진출

발에 발이 뭉겼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5위에 그쳤다. 2005년 헬싱키 세계육상대회에는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메이저 타이틀이 없는 ‘무관의 제왕’이다.

게다가 세계기록 보유자는 세계육상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도 있다. 징크스를 깬 스프린터는 ‘원조 탄환’ 모리스 그린(미국)뿐이다.

파월은 비자 문제로 예정보다 늦게 결선지에 도착했지만 하루네 시간 이상 막판 담금질을 하고 있다.

파월 캠프는 베이징올림픽 전초전인 이 대회가 가이의 기세를 꺾을 기회라며 버르고 있다.

올해 기록만 놓고 보면 가이가 파월을 앞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동갑내기지만 파월보다 늦게 스타덤에 오른 가이는 초속 2.2m 뒷바람으로 기록을 공인받진 못했지만 파월의 세계기록보다 빠른 9초76에 결승선을 끊은 적이 있다.

미국선수권대회에선 맛바람을 뚫고 9초84로 달렸다.

가이는 오사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목표는 물론 우승이다. 하지만 파월을 이기려면 정말 지독할 정도로 빨라야 한다. 그러다보면 세계기록도 깨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주희 강편치...女챔프 등극 24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복싱 세계권투협회(WBA) 초대 라이트플라이급 타이틀매치에서 김주희(왼쪽)가 일본의 시쿠리다 유키에게 왼손 훅을 날리고 있다. 김주희는 7회 1분17초 만에 TKO 승을 거둬 새로운 챔프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24일 북구 시립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제2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애인체전 광주시선수단 결단식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24일 오후 북구 시립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광역시 선수단 결단식 및 강화훈련식을 선포하고 15일간의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9월 10~14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육상등 16개 종목에 2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지난대회(제 26회)에서 금 23, 은 27, 동 25개를 획득, 종합 8위에 입상했으며 이번대회에는 종합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27회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선수들이 22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은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 창립원년에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장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인원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야구 도핑테스트 한다”

KBO “양성 반응 땀 명단 공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야구가 드디어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 금지약물 반응검사를 1회 실시하고 최종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으로 드러날 경우 올해에 한해 제재없이 선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칙을 확정, 24일 공식 발표했다.

도핑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안을 결정짓는 반도핑위원회는 다음 주 발족하고 도핑전문가 이종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 프로야구선수협회 추천인사인 김상범 중앙대 체육학과 교수, 최원현 변호사와 정근조 KBO 운영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KBO와 선수협회 간 지루한 줄다리기에 끝에 실제 여부가 불투명했던 도핑테스트는 양자간 절충점을 찾아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반도핑위원회는 22일 사전 접촉을 통해 올해 잔여기간 1회 약물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선수 양성반응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에 한해 제재없이 그 명단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검사 일자와 실시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금지약물 반응검사는 당일 1군 엔트리 선수 중 무작위로 3명을 뽑아 실시하기로 했고 KBO 기술위원, 도핑컨트롤을 위한, 각 구단 도핑 담당자가 각각 1명씩을 뽑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명’ 김창윤 데뷔 첫 우승

KPGA 선수권 최종 8언더파

무명이나 다름없는 김창윤(24·힐라코리아)이 국내 프로골프 최고 전봉을 자랑하는 코리아골프 아트빌리지 한국프로골프(KPGA)선수권대회에서 ‘슈퍼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의 연승을 막고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김창윤은 24일 경기도 용인 코리아골프장(파72·6천440m)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정상에 올랐다.

역시 2타를 줄인 김경태를 1타차로 제친 김창윤은 TV 인터뷰를 통해 12월 결혼할 예비 신부 광영미(26)씨에게 공개 프로프

를 하는 기쁨도 누렸다.

2004년 프로테스트 수석 합격에 이어 이듬해 시드선발전 1위를 차지하는 등 화려한 데뷔 과정을 거친 김창윤은 그러나 7명이나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새내기 챔피언’이 쏟아진 지난해 준우승 한차례에 상금랭킹 25위에 그쳐 빛을 보지 못했다.

올해도 매경오픈에서 공동 12위에 올랐을 뿐 상금랭킹은 33위(2천460만원)에 그쳐 김경태가 벌어들인 상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최종 라운드에서 차분하게 페이스를 지켰고 엄청난 행운까지 따라 주면서 한국프로골프 역사에서 뜻깊은 우승컵을 차지하며 스타 탄생을 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5일(토)

▲2007 오사카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06 : 55·KBS1)

▲프로야구(LG-SK)(16 : 30·KBSN Sports)

▲제11회 IAAF 월드 챔피언십 육상 선수권(16 : 50·Xports)

▲일본 프로야구(하로시마-요미우리)(18 : 00·MBC ESPN)

▲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 C조(스페인-아르헨티나)(15 : 50·SBS 스포츠), D조(프랑스-일본)(18 : 50·SBS 스포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볼턴-레딩)(23 : 00·MBC ESPN)